

전남 농촌휴양체험마을 ‘인기’…정부 지원 ‘인색’

지난해 방문객 120만명 넘어서며 생활인구 증가 등 ‘효과’ 지역 특성 고려 않는 ‘스타마을’ 선정…전남선 나주만 선정 콘텐츠 개발·시설 개선 등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늘려야

전남지역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휴양체험마을 방문객이 지난해 1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데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스타마을’ 선정에서조차 전남은 단 한 곳만이 선정되는데 그쳤다.

농식품부는 방문객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스타마을을 선정했는데,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인접한 농촌체험마을과 비교해 방문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전남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72곳의 연간 방문객이 128만8862명명을 기록,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이 늘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133억6000만원에 달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관광 중심지로 농촌 소득 증대와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올해 배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예산은 31억1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은 6700만원 수준으로 나머지 예산을 전남도와 일선 시·군, 자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관련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서 전남도와 시·군에서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체험 마을 시설개선이나 콘텐츠 개발에 투입되는 활성화지원사업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만, 올해 예산은 3억2200만원에 불과하고 아마저도 국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쉽지 않은 까닭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 관리하는 농식품부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스타마을 20선’에 전남은 ‘나주 예곡왕국

마을’ 단 한 곳만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촌관광과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스타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남은 전국(1200여개)에서 가장 많은 농촌체험마을을 보유하고도 스타마을 선정 결과에서는 아쉬움을 삼켰다.

농식품부는 지역 고유의 자원 활용, 체험콘텐츠의 독창성·차별성, 숙박·식사의 질, 스토리텔링,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전문 심사위원이 평가한 뒤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전국의 120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심사평가는 1~3차 심사를 통해 선정했지만, 전남도내 체험마을은 1차 심사 기준인 방문객과 매출액에서 타 시·도에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인접해야 많은 방문객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전남의 경우 이 부분에서 약점을 가진 셈이다. 강원(6개), 충청도(3개), 전북(4개) 등이 스타마을 20선에 선정된 것도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과 무관하지 않다.

농식품부는 스타마을에 선정된 곳에는 마을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 SNS 홍보를 집중지원하기로 한 만큼, 선정되지 못한 전남지역 체험마을의 아쉬움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 상황을 고려한 정부 지원 및 국비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남도와 일선 시·군, 체험마을 종사자들이 고군분투하며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과 전남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수목비엔날레 성공 기원” 8500만원 입장권 구매 약정

광주은행·목포대 등 5개 기관

전남도는 5일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85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식에는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박시형 국립목포대학교 교학부총장 등 5개 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총 8500만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했다.

구매된 입장권은 임직원 복지, 고객 환원,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입장권 구매약정식은 지역 기업과 대학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동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문화예술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실천은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며 “이번 약정을 통해 함께해 준 기관 모두가 전



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메세나 기업으로서 지역 예술 발전에 의미 있는 동행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관람객에게는 감동을, 지역에는 활력을 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

을 주제로 8월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진도·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존의 전시와는 차별화된 현대 수목의 동시대적 해석과 예술적 확장성을 보여주는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강진 ‘전국 최초 강진 반값 여행’ 최우수상 등

전남도는 5일 ‘2025년 상반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심사를 거친 후 도 부문 7개 부서와 시·군·공공기관 부문 13개 기관이 참여한 발표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심사결과 ‘찾아가는 장애인건강지킴이’〈사진〉, ‘강진 반값 여행’이 각각 부문별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민 제감, 적극성, 중요도, 확산 가능성, 4개 항목을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도 부문에서는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의 ‘찾아가는 장애인건강지킴이’가 시·군·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강진군의 ‘전국 최초 강진 반값 여행’ 사례가 최우수

상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여순사건 유적지 전라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안내 서비스 개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품고 재난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다’ 사례 등 총 1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

도 부문 수상 부서에는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포상금과 상장을 시·군·공공기관 부문 기관에는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 태풍 대비 도로명판 등 시설물 점검

전남도가 4일부터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가 담긴 시설물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태풍으로 주소정보 시설물이 쓰러지거나 파손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11만 6000여개의 도내 주소정보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로명판 연결고리 부분의 균열·부식

등 안전도 ▲기초번호판 자체 부착 불량 확인 및 조치 ▲기초번호판 지주 연결부분 훼손과 변형 여부 ▲주소정보시설의 표기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낙하할 경우 도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은 오는 10월까지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서 인생샷 찍 전남 매력 알리 무선 이어폰 받

GO

도, 31일까지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통해 포토 챌린지

전남도는 여행 인플루언서와 함께 ‘전남여행 포토 챌린지’를 진행한다.

포토 챌린지 ‘전남이라 전부 인생샷’은 147만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채널을 통해 공모를 진행한다.

챌린지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이거나 제시한 지정 자세로 촬영한 사진이면 가능하다.

전남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도 심사 배점표와 심사위원을 구성, 1,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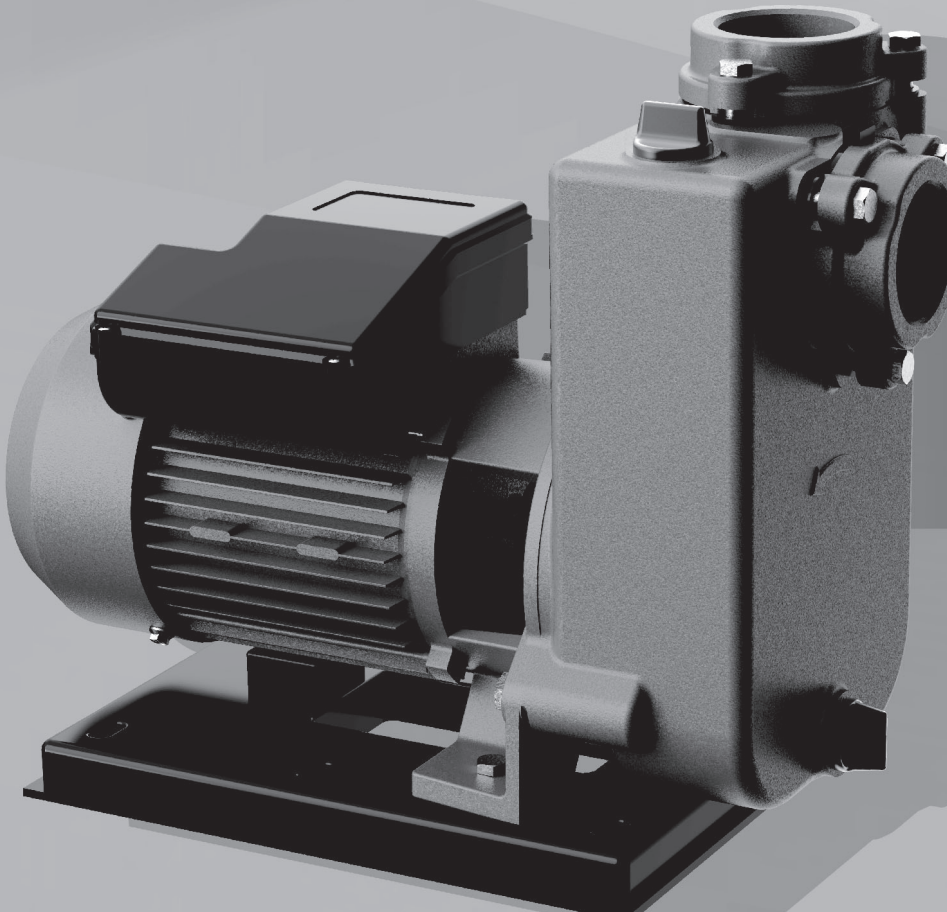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1등 무선이어폰, 2등 2025 남도국제제미식산업박람회 입장권 혹은 목포 숙박권, 3등 즉석 사진기, 4등 커피전문점 e카드 등이 주어진다.

공모전은 전남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선정된 사진 콘텐츠는 전남도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전남여행 포토 챌린지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 풍부한 사진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 전남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